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브라운아이드소울 새 싱글음반 발표

멤버 나일의 군 복무로 2년 반가량 공백기를 가진 4인조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이달 새 싱글음반을 발표한다.

이번 음반에는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두 곡의 신곡이 담겼으며 미술을 전공한 나일이 음반 채킷과 포스터 디자인을 맡았다. 이 음반에 이어 이들은 두 곡씩 담긴 세 장의 싱글음반을 발매하고 5월 라이브 콘서트도 개최한다.

2003년 1집으로 데뷔한 이들은 2007년 4년 만에 2집을 발표해 약 10만장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한 바 있다.



‘신데렐라 언니’ 천정명

“2년만의 연기 재개 감 잡았죠”

다”며 웃었다. 문근영과 서우가 의붓 자매로 출연하는 ‘신데렐라 언니’에서 천정명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기혼 역을 맡았다. “사실 근영이나 서우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둘 다 굉장히 털털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어요.” 천정명은 드라마에서 8살 아래이자, ‘짐승돌’인 그룹 2PM의 옥택연(22)과 남성미를 겨루게 된다. “재대했을 때 몸무게가 불어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좋은 택연이랑 같이 드라마를 한다는 소식을 들

“공주과로 알았던 문근영씨 털털해서 금방 친해져”

“군대에서 TV를 통해서만 보던 분들과 다시 연기하게 돼 즐겁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군에서 제대해 천정명(30)이 31일 첫선을 보이는 KBS 2TV ‘신데렐라 언니’로 2년 만에 연기를 재개한다. 천정명은 “복귀하면서 영화를 하고 싶었다. 몸이 아직 덜 풀려 준비 기간이 드라마에 비해 긴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 작품을 만났다”면서 “같이 군복무를 한 친구 조인성과 차기작을 이야기하며 꿈꾼 작품이 바로 이런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는 타입이라 배우들이 촬영 전에 대본 리딩을 아주 많이 했다. 이렇게 대본 리딩을 많이 해본 드라마는 처음”이라면서 “예전에는 작품을 하면 중반부 이후에야 감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준비도 많이 하고, 또 2년간 군대를 다녀와서인지 초반에 바로 감을 잡아 기분 좋

고 7~8kg을 바로 뺐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웃음) 몸짱에서 슬림한 남자를 거쳐 짐승남까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춘 멜로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2년 만에 복귀하는 데 부담스러운 역할은 맡고 싶지 않았다”며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는 내가 혼자서 이끌어가지 않아도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신데렐라 언니’는 ‘봄날’을 집필한 김규완 작가의 작품. ‘봄날’은 천정명과 절친한 조인성과 고현정이 주연을 맡았다. 천정명은 “인성이나 현정이 누나 등 주변 사람들이 모두 김규완 작가님과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김 작가님 작품이 힘들 것이라고는 하더라. 대사도 길고 어렵다고 해서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사 프린세스’ 김소연

“영똥발랄 제 참모습 즐기세요”

“평상시 친구들과 있을 때 제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른 때는 연기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연기 안 하려고 노력해요.”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에서 조인 검사 마헤리 역을 맡은 김소연은 최근 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마헤리와 저는 싱크로율 99.9%”라고 말했다. 김소연은 “아이리스”가 끝나자마자 정반대의 밝은 역을 찾았다”며 “영똥하고 밝은 진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검사 프린세스’ 시놉시스를 받고 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가 가까운 사람들과 노래방에 가면 재미있게



“평상시 말투·행동 보여줄 뿐... 되레 연기 안하려 노력”

잘 놀아요. 다른 여러 작품을 보면서 참고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평소 친구들과 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헤리는 건설사 회장의 딸로 소름과 피부관리, 몸매 관리가 취미인 ‘똥장녀’로 예쁜 웃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아이큐 167에 집중력과 암기력도 좋아 부모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도 한 번에 패스했다. 사법연수원마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검사가 됐지만 사명감은커녕 ‘개념’조차 없고 귀찮고 몸이 힘든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조인 검사 마헤리는 사람과 사랑을 통해 진정한 검사로 거듭난다. 집에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눈을 붙이고 다시 나올 정도로 강행군한다는 김소연은 “현장 분위기가 좋아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그는 “주로 전문직 여성을 많이 맡아 화려한 옷을 입을 기회가 없었는데 화려한 옷과 액세서리를 오버스러울 정도로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며 “킬힐만 신다 보니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되는 ‘검사 프린세스’는 문근영 주연의 ‘신데렐라 언니’(KBS)와 손예진 주연의 ‘개인의 취향’(MBC) 등 만만치 않은 상대와 맞붙게 된다. 김소연은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계속 밝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작품들이 워낙 쟁쟁해서 부담스럽던 생각이 들면 집중력이 흐려지더라”며 “(경쟁작에 대한 부담 같은) 그런 생각을 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이엘리시아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용량)

- 총 12칸, 선부, 가족칸, 4인, 2인
- 소량(10명) : 학원방식, 개별방식, 2인식, 4인식, 6인식
- 대량(20명) : 홀식, 갈판, 뷔페, 파티룸식, 6인식, 10인식

062)671-1199

광주광역시 서구 구암동 2층 DUV 빌딩

주식회사 지티

각 시·군 대리점 모집

구현, 순천, 광안, 여수, 장성 제외

062-371-7095

011-601-7701